

당부의 글

2012년 7월 15일

저는 지난 20여 년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또 성경대로 믿는 분들의 책을 번역/출간하기도 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책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은 사랑침례교회를 세워 믿음의 공동체로 키우며 지역 교회를 다스리고 먹이는 사역을 조그맣게 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는 제 인생에서 발생한 여러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연구의 결과를 설교나 성경 공부 등으로 통해 알리고 사이트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결코 저의 견해는 다 맞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다 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므로 생각이 짧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글로 적거나 말씀을 통해 선포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킵바이블 사이트를 통해 무언가를 읽고 알게 된 분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지역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킵바이블은 홈페이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많은 편이고,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통로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홈페이지 진영의 교리와 지식에 반드시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오직 바른 성경밖에 없습니다.

독립침례교회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 명의 목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모든 면에서 저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교리나 해석 방법이 저와 다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의 판단 기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는 염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다니면서 킵바이블 사이트에 올라온 저의 글이나 설교 혹은 다른 분들의 설교나 글을 통해 어떤 교리를 배웠는데 그것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리와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십일조에 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율법의 십일조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교회에서도 십일조를 내라고 하지 않고 자발적인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의 의도를 왜곡하여 출석하는 교회에 알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 형제들에게 왜 저나 저희 교회처럼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십일조는 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최소한 신약 시대 헌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 성도들은 수입의 십 분의 일 이상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가르침

입니다. 물론 양심에 따라 할 일이므로 성도가 그것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약의 십일조 형태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많다 보니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고자 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취하여 교회에 알리고 교회 안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성도로서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지역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만든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땅 위의 지역 교회는 거기에 속한 회원들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그 조직의 규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한 인격체로서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대로 믿는 지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이트의 기사(글이나 음성,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 가서서 그 교회에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목회자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경을 쓰는 교회들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부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감을 얻기 원합니다.

본인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 교회의 방침과 다르다 해도, 그 교회에 있는 한 그것을 표출시켜 문제를 일으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다른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그 교회를 나오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끼리 다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양심의 평안을 위해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 드림

(*) 위에서는 십일조를 예로 들었지만 이것 외에도 거침이 되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사례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샬롬!

당부의 글 추가(2012년 7월 24일)

오늘 날짜로 사이트의 대부분의 파일들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였습니다.

성경 구절 자체에 대한 질문은 상단의 녹색 성경공부 메뉴의 성경Q&A에 책 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창조와 진화, 뉴에이지, 은사주의, 이단 교리 등은 녹색 성경공부 메뉴의 성경교리에 분야 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글은 녹색 성경공부 메뉴의 성경교리/크리스천생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게시판에서는 녹색 성경공부 메뉴에서 특정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을 담은 성경 Q&A와 성경교리(창조와 진화, 구원과 성화, 죄, 인간, 하나님 등, 자세한 목록은 성경교리를 둘러보기 바람)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글만 가능하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얻은 유익과 간증의 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각각의 지역 교회에서 서로 달리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글은 성도들 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즉시 공지 없이 자유게시판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변 잡담 수준의 글 역시 이제부터 즉시 공지 없이 자유게시판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성경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을 담은 글만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유게시판에 합당한 글이 올라오면 얼마 동안 서로 나누도록 두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합당한 카테고리로 글을 옮기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는 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에 가서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지역 교회들 - 특히 킹제임스 홈정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 - 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내린 조치이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킹제임스 홈정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고 따라서 교리의 실행 면에서의 스펙트럼도 넓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서로 갈등이 생기기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어 이렇게 당부의 글을 올리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당부의 글을 조금 더 추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 드림